



경덕 스님 (원주 상원사 주지)

“집착심 버리면 세상살이 편해져요”

이 되어 공부했는데, 그때 선공부하는 방법을 알았다. 경덕 스님은 선공부를 하는데 있어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도반을 잘 만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일 스님이 ‘화두를 참구하면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화두가 들린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무자화두를 들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줄 몰랐지요.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거나 대화할 때나 예불할 때도 화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니, 화두가 좀 성성해지는데,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억지로 가의정을 자꾸 만들어 가야지. 이 공부가 어렵다 해도 하면 되는 것이 또 선공부입니다. 중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어렵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공부해야 해요.”

경덕 스님이 공부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시절이었으니 절 살림인들 오죽하였으랴. 선방수좌들은 좌복이 평생 동안의 이불이다. 참선할 때 깔고 앉았던

하였다. 그때 20명이 결사하였는데, 해제할 때는 경덕 스님과 우성 스님 두 사람이 이 남았다고 하니 선공부가 결코 쉽지 않음을 새삼 절감할 수 있다. 경덕 스님은 그때 신심이 나서 2년 동안 묵언정진을 하였다고, 1년 동안은 가행정진을 하였다. 가행정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하니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옷을 입을 때나 밥을 먹을 때도 행어나 화두 놓칠 것을 염려하였다고 하니, 자신에게 한 치의 헛된 시간을 용납하지 않는 수행자의 매서운 면모를 볼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중송을 하는데, ‘약인육로지 삼세일체불(因人慾知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라’고 송을 하는데 ‘일체유심조’라는 대목에서 목이 꼭 메이데요. 그때 가슴이 텅 비어지면서 온 우주에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문관에 앉아 있으면 내가 허공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또 누가 내 목을 잘라간다고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2년 묵언정진·1년 가행정진 등 치열한 수행

“수행자에게 물질은 毒이니 반드시 경계해야”

좌복을 받에 잠잘 때는 이불 삼아 배 위에 덮고 잤는데, 오히려 가난했던 그 시절이 그렇다고 하였다. 옷이래야 누더기같은 여름옷과 겨울옷 한 벌이 전부이고, 한평생 생동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랑에는 <선문촬요>와 <선가귀감> 책 2권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공부하는 재미에 빠져 그것이 가난인 줄도 몰랐단다.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물질은 독과 같은 것이기에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경덕 스님은 화엄사 선방에서 두 철을 냈는데, 그때 입승소임을 맡았다. “대중들이 모여 사는 곳인지라 각자가 소임을 맡아요. 서로가 소임을 맡아서 하면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되지 않고 좋지요. 마당을 청소하는 소임, 수각 청소하는 소임, 다각 소임 등 각자의 소임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의 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입승이라는 책임감이 있으니,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시비(是非)가 생기더라고요. 남과 싸움을 해서 시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쁘다는 분별심이 생기는데, 그것이 시비지. 그런데 시비하는 순간은 화두가 들리지 않고 공부에 방해가 되니 분별심을 내면 그만큼 손실이 큼니다.”

경덕 스님은 1965년 천축사 무문관에서 서용 스님을 조실로 하여 2년 결사를

생각이 들데요. 화두공부가 잘 되면 몸뚱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간가는 줄도 몰라요.”

“구마라습의 제자이자 <조론>을 저술한 승조 스님의 계승이 생각났다. 승조 스님의 명석함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승조 스님을 재상으로 모시고 싶어서 몇 번씩 사람을 보내어 간청하였지만, 승조 스님은 그런 권력과 명예는 수행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거절하였다. 그런 스님의 모습이 왕의 눈에 오만하게 보였는지 승조 스님은 31세의 나이로 사형을 당하였다. 죽을 직전에 승조 스님은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었다. ‘이 몸에 모양새 본래 없으니 마음에 망상분별 그 자체 비었네// 저 같이 내 목을 자른다 해도/ 불어오는 불바람을 어이 끊으리.’

무문관에서 공부할 때 경덕 스님의 마음이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던 승조 스님의 마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싶다.

경덕 스님은 상좌를 잘 가르쳐서 큰 도인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강원에도 보내고 공을 들였다. 그런데 강원에서 공부하던 상좌가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그때부터 진주, 울릉도, 부산 등 한 달 이상을 찾아다녔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꿈에도 화두가 성성해야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화두보다

상좌가 더 성성할 정도였어요. 남들은 나보고 상좌에게 미쳤다고 말하였지만, 그때는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줄도 몰랐지요. 용주사에서 찾았는데 이제 그만 가자고 했더니 상좌가 ‘스님, 저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하는데, 그 한 마디에 ‘집착이 바로 지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누군가가 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하면 ‘집착이 바로 지옥’이라는 법문을 해주게 되었다. ‘이 세상에 집착보다 더한 지옥은 없어요. 화두공부해서 견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불지라면 집착심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됩니다.’

집착심이 적어지면 적어진 만큼 세상살이가 편해진다는 스님의 말씀이 감로수로 다가왔다. 지금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집착심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것부터 알아차려야 할 일이다.

글 · 사진=윤운정(수필가·본지는설원원)

경덕 스님은 계룡산갑사에서 해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결명을 지고 범어사, 파계사, 용주사, 해인사, 화계사 승려사신방을 떠돌았다. 천축사 무문관에서 2년 결사를 원만하게 성료하였다. 성철 스님, 탄허 스님, 동산 스님, 설봉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였다. 현재는 원주 상원사 주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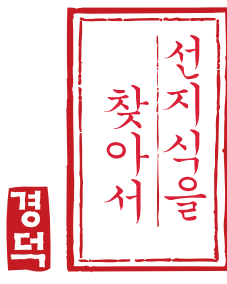
치 약산으로 가는 길은 색깔 잔치였다. 빨강 노랑 물감을 붓에 흠뻑 묻혀서 칠해놓은 듯 화려하였다.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나뭇잎들의 몸짓은 마지막까지도 아름답다. 우리들의 마지막 행로도 나무들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산을 올랐다.

경덕 스님은 어릴 때부터 절을 좋아하였다. 어른들로부터 사명 대사나 서산 대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열일곱에 출가를 하였다.

스님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절을 좋아한 것도 전생에 불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출가동기를 생각하면 육신낼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출가동기를 망각하게 되니 돈도 알게 되고 명예도 알게 되지. 수행자는 출가동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진 출가한 경덕 스님은 선공부를 누구로부터 배운 바도 없이 선방에서 공부하였다. 선방에서 남들을 따라 목탁을 치면 그저 앉고서기를 반복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다 범어사에서 정일 스님과 도반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써 밝고 환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당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 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